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te. Marie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파견기간	2018-2 학기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 파견대학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다녔던 학교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자동차로는 8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창보다도 뭐가 없습니다. 편의점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본 게 답니다. 그래도 Metro라는 마트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내로 나가면 Station Mall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월마트도 있고 생활용품 파는 곳도 있습니다. <p>규모 및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는 정말 작습니다. 십자형 건물 하나, 체육관, 신축 건물, 그리고 기숙사가 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를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시설이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 정말 좋습니다. 줌바,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돈을 내실 때 체육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건물 일부분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내부는 깨끗합니다. <p>전체적인 분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 정도로 학교규모가 작다 보니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냥 수세인트 마리 자체 분위기가 참 친근하고 사람들도 참 친절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면 너무 상냥하고 자기 일인냥 함께 해결해주시려고 합니다. 파견 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나 가고 난

	<p>후 어려움이 생기신 경우, 담당 선생님께 물어 보시면 됩니다.</p>
<p>2018-2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수강한 과목</p> <p>저는 토익 성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ESL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일 경우, ESL 수업과 전공 수업(최대 3과목)을 함께 들을 수 있어 저는 전공 2과목과 ESL 레벨5를 수강했습니다.</p> <p>ESL 레벨 1-4 수업의 경우, 아침 8시 반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오전 수업만 있습니다. ESL 레벨 5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겸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미리 시간을 합의하여 1주일에 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1주일에 4번, 한 번 당 1시간 30분) Academic writing, Job interview, Presentation을 중점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p> <p>저는 전공수업으로 합창과 Introduction of Creative Writing이라는 수강했습니다. 합창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이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학교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Introduction of Creative Writing은 글쓰기 수업이고 시, 소설, 극 대본을 1학기 내내 창작합니다. 거의 매주 과제가 있지만, 시험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글쓰기 수업은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에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과제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수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업이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Marissa Ross)이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셔서, 한국소설을 수업자료로 쓰시기도 하시고, 미리 약속만 잡으면 언제든지 과제 피드백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친절하십니다. 액티비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도 별로 안 어렵고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오히려 ESL수업이 더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영어'만을 위한 수업이어서 더 헛갈리고 어렵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p>

<p>2019-1학기 수업</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ESL 학생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L 프로그램의 총 담당자는 Hana? Hanna? 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분보다는 애슐리나 줄리아와 좀 더 많이 마주칠 것입니다. 참여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이스하키게임 관람, 산타 퍼레이드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수세인트마리를 알아가는 데에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 담당자는 은정선생님이시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담당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대부분 대런 혹은 브래드입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하이킹, 아가와 트립, 교환학생 크리스마스 만찬 등이 있었습니다. <p>이외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P, ASAP와 같은 프로그램은 ESL이나 교환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분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O-WEEK ISOP가 국제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면 O-WEEK는 알고마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니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각종 파티 할로윈 파티, O-WEEK 파티 등 갖가지 파티가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제가 도착했을 때는 날씨 참 좋았습니다. 하늘도 맑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러니 여름 옷 조금만 챙겨가세요.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눈이 엄청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미친 듯이 옵니다. 처음엔 방한 부츠 안 사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강제로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발 안에 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첫 눈이 오는 즉시 방한부츠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밤 11시에 혼자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은행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는 총 세 곳으로 New Res(Dorm), Old Res(Dorm), Town House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첫 번째, New Res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신입생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못 삽니다.</p> <p>두 번째, Old Res는 제가 살았던 곳이고, 이곳은 룸메이트 한 명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만 공유합니다. 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은 이 곳이 참 좋을 듯 합니다. 방 크기도 혼자 쓰기에 꽤 큼니다. 순천향대학교 향설 1에 있는 방을 혼자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공용주방이 있어서 취사 가능합니다. 단, 냄비나 후라이팬은 없어서 알아서 사서 쓰셔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니니 사서 쓰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냄비를 세금 포함 20달러 정도에 샀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시면 무조건 Meal Plan을 사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방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숙사의 최대 장점은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p>

	<p>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려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휴지도 채워주시고, 여학생의 경우엔 위생용품도 챙겨주십니다. 룸메이트와는 화장실만 공유해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격 차도 있지만 룸메이트와 친해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개인시간을 많이 갖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드립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걸 좋아해서 참 좋았습니다.</p> <p>세 번째, Town House는 5명이 집 한 채를 공유하는 기숙사입니다. 집 내부는 주방, 거실, 개인 방 5개, 화장실 2개로 되어있습니다. 샤워실은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사시면 Meal Plan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Old Res와 마찬가지로 후라이팬이나 냄비와 같은 식기도구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친구 사귀기엔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 친구들 인종과 나라를 맞춰줘서 참 좋습니다. 제가 자주 놀러 갔던 타운 하우스엔 한국인 3명, 일본인 2명이 같이 살았는데 이 5명 사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를 보다 빠르게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타운하우스 추천합니다.</p> <p>모든 기숙사는 비교적 이성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Guest 뭐시기라고 미리 신청하면 10일 정도 외부인이 본인의 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음식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침 메뉴, 햄버거, 피자, 랍, 각종 튀김(어니언링, 치킨핑거 등)과 같은 음식은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샐러드와 스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뀌가며 제공하고 오늘의 점심이나 저녁과 같은 메뉴는 매일 다릅니다. 아침 메뉴는 아침 8-11시까지 제공하고 주말(토,일)에는 하루 종일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질리긴 할 겁니다. 그럴 때 주방에서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학생들이 식재료를 학교 내에서 사기도 합니다. 채소 같은 것들은 부탁하면 팔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먼저 여쭙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eal Plan은 학교 내에 있는 카페(Tim Hortons)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학교 내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통학은 걸어서 했습니다. 시내교통의 경우, 주로 20회 탑승권 또는 1학기 탑승권을 구매합니다. 1학기 탑승권은 약 180달러 정도이며,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을 위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통학하는 학생들처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20회 탑승권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한 학기 동안 20회 탑승권을 2번 샀습니다. (*가격: 20회 탑승권-45달러)</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24302원 + 약 30만원	인천-토론토, 토론토-수세인트마리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CAD\$ 469.82</p>	복사비, 체육관 사용비, 총학생회비 등을 포함한 학생회비
보험료	<p><i>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i></p> <p>U-HIP(대학교에서 권하는 보험), \$208</p>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 (학기 후, 장기여행을 원한다면 드는 것을 추천)
숙소	CAD\$ 2705+100+25=2830	Old Dorm (기숙사비용+Damage deposit+ Residence Life fee)
식비	CAD\$ 1255 + ?	Meal Plan과 장 본 비용(기억이 안 남. 한 번 볼 때 30)
교통비	CAD\$45 x 2= CAD\$90	20회 탑승권
책값	약 CAD\$ 50	책은 학교 서점에서 빌림
기타1	생활비 160만원 + 처음 가져간 돈 CAD\$ 1200	
기타2	여행비 103만원	학기 종료 후 토론토-뉴욕 여행(12일)

		(토론토-뉴욕 왕복은 메가 버스 이용, 쇼핑비용 포함)
합계	4,454,302원 + CAD\$ 5962.83	캐나다 달러는 그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 비용은 잘 모름. 처음 가져간 현찰 1200달러로 학교 보험비도 냄.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책값, 밀플랜 외 식비, 교통비 등은 용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합계에 안 들어감. 여행은 얼마나 오래,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돈의 지출이 달라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파견 전, Algoma대학교에서 컴퓨터를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을 하긴 하지만, 한 번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은 학교에 도착하여 결제합니다. 또한 시간표도 담당선생님과 함께 짜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의 경우, 학교보험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학기가 끝난 후에 안전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행을 위한 보험을 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불은 캐나다에서 사거나, 학교에 베딩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돈 한푼 아끼겠다고 한국에서 가져갔는데 집 갈 때 후회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베딩은 CAD\$60-65이었습니다.

ISOP과 ASAP프로그램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SOP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석이 필수이므로, 이메일이 오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SAP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입니다. Algoma대학교 학생 1명과 멘티 2-3명이 함께 합니다. 멘토를 잘 만나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자신의 멘토가 누군지 모른 채 학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 주고 받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심을 사실 분은 스마텔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유심 공동구매를 했는데 그냥 스마텔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해야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비용도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중간고사 1-2주 전쯤에 1주일 정도 짧은 방학이 있습니다. 스터디워크라고 해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니 학기가 끝나고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강 날은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12월 셋째 주 안으로 다 끝납니다. 저는 수업은 12월 4일에 모두 끝이 났고 과제 제출은 12월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기숙사기한은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즈에게 따로 이메일 보내시면 12월 31일까지 더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ISOP에서 로즈가 기숙사 관련 OT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수기도 별로 없고 인터넷에도 이렇다 할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담당자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초반 행사도 꽤 많아서 학교 파악하는 데에는 큰 탈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친구 사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원래 성격이 처음 보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정말 외향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며, 친해질 기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ASA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멘토였던 친구와 친한 것이고, Old Dorm에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국인들이랑 절대 같이 안 지낼 거라고 다짐하시겠죠? 아뇨. 저는 한국인 친구들 없었으면 벌써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중도하차 했을 거예요.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말로 위로 받고 한국말로 웃고 떠드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초반에 같이 파견 간 언니가 있어서 학교생활에 더 빨리 적응하고 친구들도 더 빨리 사귄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간 언니 없었으면 매일 혼자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학생들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만 놀아 라고 생각하는데 개네도 개네끼리 놀니다.

캐나다는 일처리가 정말 느립니다. 핸드폰 비용을 내려고 은행을 갔는데 은행원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이 보내져서 정정하는 데만 거의 2달 걸렸습니다. 한국처럼 빠른 처리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무통장입금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림)

개인적으로 4개월이 너무 짧았습니다. 뭔가 익숙해지려고 할 때쯤 학기가 끝난 기분이라서 더 아쉬웠습니다. 다음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을 위해 1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 음식

- Metro – 신라면(봉지), 육개장, 너구리, 일본 라멘, 우동면, 쌀국수면, 고추, 두부, 콩나물, 중국식 만두, 미소된장, 김, 소스
- Food Basic – 튀김우동, 새우탕, 일본 라멘, 우동면, 쌀국수면, 갈비 소스, 중국식 만두, 된장, 다양한 소스, 고춧가루 등

Food Basic이 Metro보다 더 싸고 조금 더 다양한 한국 또는 아시아 음식을 팔지만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월마트에는 그리 많은 아시아음식을 팔지 않지만 간장이나 소스는 팔긴 합니다. 어디선가 소주와 고추장을 산 사람도 있지만, 소주는 너무 비싸고 고추장에선 토마토 맛이 납니다. 다시다를 챙겨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스터디워크에 여행을 가실 계획이라면 꼭! 한인 마트에 들러 한국음식을 사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오리엔테이션에서 준 밥



알고마대학교 메인 빌딩



Meal Plan	O-Week 행사(워터 슬라이드)
	
Agawa Trip(수영복 챙기세요)	하이킹
	
학교 내 카페(Tim Hortons)	아이스하키

	
<p>할로윈 파티</p>	<p>방-1</p>
	
<p>방-2</p>	<p>방-3(책상)</p>
	
<p>화장실-1</p>	<p>화장실-2</p>